

포항시 일부지역의 모성보건에 관한 기초조사

중앙의학, 35권 5호, 1978.

이 지 순

본 연구는 경상북도 포항시 인덕동 2통, 3통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유자녀, 유배우부인 98명을 대상으로 1978년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모성보건의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지역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인구분포는 도시형이며 20~39세 연령층이 가장 많고, 여자가 더 많다. 가구원의 크기는 평균 4.7명이며 최고 9명까지이다. 가구주의 직업은 회사원이 56.1%로 가장 많고, 다음이 노동으로 21.4%이다.

생활정도는 중하가 57.1%로 수위이고, 하상이 15.3%로 차위이며, 중상이 13.3% 차지했다.

2. 대상부인의 특성으로 연령별 분포는 30~34세군이 30.6%로 수위였고 평균연령은 32.5세이다.

교육정도는 국졸이 40.8%로 수위이고, 중졸이 차위이며 다음으로 무학이다(12.2%)

종교분포는 무종교가 52%로 수위이고, 불교가 36.7%로 차위이다.

3. 결혼 및 분만양상으로 결혼연령은 15세에서 30에 분포하여 23~24세가 31.6%로 수위이고 21~22세가 24.5%로 차위이며 평균 결혼연령은 22.5세이다.

결혼기간은 5~9년이 38.8%로 가장 많고, 평균결혼기간은 9.6년이다.

임신히수는 1회에서 7회에 이르고 2회, 4회 임신이 21.4%로 수위이고 3회가 20.4%로 차위이며 평균 임신 회수는 3.2회이다.

인공유산율은 13.6%, 자연유산율은 0.3%, 사산이 2.5%이다.

산전·후 진찰 경험군은 22.3%이다.

초산연령은 23~24세가 29.6%로 수위이고 25~26세가 22.4%로 차위이며 평균 초산연령은 23.5세이다.

분만횟수는 2회가 31.6%로 수위이고, 3회가 26.5%로 차위이며 평균 분만횟수는 2.7%이다.

분만장소는 가정분만이 77%로 수위이고, 병원 분만이 12.8%, 조산원 분만이 10.2%이다.

분만개조자는 이웃이나 친척이 52.1%로 수위이고, 다음이 12.8%, 조산원 분만이 10.2%이다.

분만개조자는 이웃이나 친척이 52.1%로 수위이고, 다음이 자기 자신에 의한 분만

으로 13.6% 를 차지하여 차위이며 의사(12.8%), 남편(11.3%), 조산원(10.2%)의 순이다.

현존자녀수는 2명이 33.7% 로 수위이고 3명이 25.5% 로 차위이며 평균자녀수는 2.6명이다. 전 여아수가 전남아수보다 많고 평균터울 수는 2.9년이다.

4. 가족계획의 피임수술율은 44.9% 이며 이중 먹는 피임약을 사용하는 군이 17.3% 로 수위이고 루프가 14.3% 로 차위이며 전혀 시행하지 않는 군이 55.1% 이다.

연령별 시행율은 40~44세군이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고(62.5%), 30~39세군이 50% 의 시행율을 보여 차위이다. 가장 저조한 군은 20~24세군이다.

학력별 시행율은 고졸이 60% 로 가장 많고, 국졸이 3.5% 로 가장 하위이다.

현존자녀 수별 시행율은 3명인 사람의 60% 가 시행하고 있고 4명인 사람이 58.3% 로 차위이며, 1명인 사람은 10.0% 로 가장 하위이다.

농촌 일부지역 주민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에 관한 조사

원주간호전문학교 학술논총 제4집, pp. 59~71, 1978.

임 선 옥

1977년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경남 밀양군 내에 거주하는 주민중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의 특성, 활상태, 건강관리(식습관, 흡연, 음주 및 수면관계), 건강상태(질병력, 의료기관이용, 상병계속일수, 의료비, 질병의 종류 및 입원관계)에 관하여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대상자의 특성

- a) 조사대상의 대부분이 20~59세로서 74.0% 였다.
- b) 무학력군이 42.8%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국민학교 학력군으로 38% 였다.
- c) 대상자가 거의 모두가 농업에 종사자였다(81.0%).

2. 생활상태

- a) 기혼자가 71.4% 였으며 미혼자는 28.6% 였다.
- b) 자가 95.2% 이며 셋집은 3.6% 였다.

3. 건강관리

- a) 음식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경우가 67.8% 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보통 먹는 편이 18.8% 였다.
- b) 흡연관계
 - (i) 500명중 흡연자가 46.6% 였다.